

玄谷의 생리학설와 芝山の 형상학설의 비교 연구

¹김경철, ²이해웅

¹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²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hysiological Theory of Hyun-Gok (Yun Gil-Young) and the Hyunsang (形象) Theory of Ji-San (Park In-Kyu)

¹Gyeong-Cheol Kim, ²Hai-Woong Lee

¹Dept. of Diagnost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²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searching examination in the connection with clinical medicine and the basic theory of Korean Medicine, we comparatively studied on the physiological system of Hyun-Gok (1912~1987) and the Hyunsang system of Ji-San (1927~2000).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etabolism of Yin and Yang is connected 'Gallbladder (膽)'-'Bladder (膀胱)' and Man (男), Woman (女), Old aged (老), Young child (小) style. Man and Woman are divided in the body form characteristic not by the sex. 'Gallbladder (膽)'-'Bladder (膀胱)' style are divided in the body form characteristic by the terms of Yin (陰) and Yang (陽). 'Gallbladder (膽)' style represents excessive Yang and deficient Yin, 'Bladder (膀胱)' style represents excessive Yin and deficient Yang. The four composition factor of the body is connected Material basis (精) type, Vital energy (氣) type, Mental faculties (神) type and Blood (血) type. In the diagnosis of body form on the Hyungsang Medicine, there are several types of body shape and categories of people. The Material basis (精) type, Vital energy (氣) type, Mental faculties (神) type and Blood (血) type are classified by the four composition factor of the body.

The structural-mechanics organization of five Internal Organs (臟) is connected five Internal Organs (臟) types and the running-animal (走), bird (鳥), fish (魚), turtle (甲) types in the Hyunsang system. The five Internal Organs (臟) types are perceived on the ears, eyes, nose, mouth and facial complexion. And the running-animal, bird, fish, turtle types are accorded to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and the most-developed part in the body trunk by the Organ picture (藏象) theory.

The six atmospheric influences (六氣) is connected the six Kyung types (六經形). The six Kyung types are regulated by the shape of eyes and nose representing for the relation of Vital energy (氣) and Blood (血). By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hysiological system of Hyun-Gok and the Hyunsang system of Ji-San, we can search the connection with clinical medicine and the basic theory of Korean Medicine.

Key words : the physiological system, Hyun-Gok (Yun Gil-Young), the Hyunsang system, Ji-San (Park In-Kyu)

I. 서론

현곡 윤길영(1912~1987)은 순수 기초학 연구에 한 평생을 바쳐, 한의학계의 중심에서 기초학문을 이끌어간 리더로서 평가 받고 있다¹⁾. 현곡은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한의학의 연구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기초 생리이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써²⁾, 그의 연구 정신을 이어받은 현곡학회 학술지인 제 3의학이 발행되었고³⁾, 최근에도 근대 한의생리학의 새로운 이론 정립과 연구 방향을 제시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⁴⁾.

지산 박인규(1927~2000)의 형상의학은 『동의보감』에 형상의학적인 진단요소를 결합하여 『동의보감』을 재해석하고 그 본지에 충실함으로써, 『동의보감』 연구계통에서 중요

접수 ▶ 2019년 10월 21일 수정 ▶ 2019년 11월 20일 채택 ▶ 2019년 11월 19일
교신저자 ▶ 이해웅,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 52-57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Tel : 051-890-3348 E-mail : jameslee@deu.ac.kr

- 1) 김남일, 강연석. 「의학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현곡 윤길영의 학술사상 -논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8;21(2):149-158.
- 2) 이충열. 「현곡 윤길영의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연구」 재조명」.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4):751-760.
- 3) 김완희. 「창간사」. 제3의학. 1996;1(1):1.
- 4)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집문당. 2008:101-108.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형상의학은 진단과 치료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한국 근현대 한의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서 인정받고 있다⁵⁾. 그의 정신을 이어 받은 대한형상의학회가 한의학 학술 활동의 부흥에 일조하고 있다⁶⁾. 형상의학에 대한 그동안 연구를 살펴보면⁷⁾⁸⁾, 현곡의 생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기초이론의 확립과 함께 변증체계를 비롯한 임상으로의 확장성을 가지며, 또한 지산의 형상분류 체계가 탁월한 진단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의학 기초이론에 충실하게 근거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현곡의 생리체계와 지산의 형상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형상 진단법이 기초 이론에 근거하는 것을 밝히고 동시에 기초 생리이론이 임상으로의 연계성을 가지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기초와 임상이 상호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II. 본론

1. 현곡의 생리체계

현곡의 생리체계는 연구의 완성이라고 평가받는⁹⁾ 1980년대 『동의학의 방법론연구』와 이에 대한 후학의 연구에서¹⁰⁾¹¹⁾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현곡은 『황제내경』의 음양 오운육기론의 체계를 기반으로 생리체계의 틀을 구축하였다. 즉, 일원적 본체로서의 인간 생리는 우주 자연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자기대사를 하며, 그 생리현상을 음양 대사로 관찰하였다. 생체의 구성요소를 정신기혈의 4대 요소로

파악하였으며,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5종 기능활동의 구조역학적인¹²⁾ 생리체계를 취하였다. 체내의 5종 기능과 육기는 외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육기의 영향을 받아 상승 또는 길항하면서 인간의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¹³⁾. 현곡의 생리체계는 현곡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황제내경』에 내재한 과학성을 골간으로 삼았으므로¹⁴⁾, 이후 현곡의 정신을 계승한 생리이론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¹⁵⁾, 많은 후학들에 의해 합리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심양면으로 관찰되는 일원적 본체인 생명현상은 음양 승강출입의 대사를 기반삼아 陽化氣 陰成形하는 양세력과 음세력의 평형을 유지하는데, 氣를 따르는 陽化氣의 이화작용과 血을 따르는 陰成形의 동화작용으로 관찰할 수 있다¹⁶⁾. 현곡은 이 점에 착안하여 기혈로 대표되는 음양 대사를 한의학의 기본 생리체계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염기평형과 자율신경계의 상대성을 통한 음양대사의 객관화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⁷⁾. 또한 이는 인체 생명현상을 구조와 기능으로 관찰하는 측면과도 상통함으로써, 현곡 생리체계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4대 구성요소는 인체의 생명현상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를 말하는 입장이다. 인체의 생명현상은 정신과 육체 또는 구조와 기능의 양면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陰의 구조적인 요소에 精과 血이 있으며, 陽의 기능적인 요소에 氣와 神이 속한다. 精은 정미로운 물질로서 단위 개념이며, 血은 혈액과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확대된 개념이며, 氣는 생체에너지이며, 神은 정신사유활동을 말한다¹⁸⁾. 4대 구성요소는 인체를 구성하는 특정 개별요소들을 정적이고 구조적

5) 정행규. 『동의보감특강』. 서울:정행출판사. 2018:2-58.

6)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1-12.

7)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내경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24-434.

8) 김경철, 이해웅. 「윤길영의 변증론 변천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5;19(3):151-158.

9) 김남일, 강연석. 「의학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현곡 윤길영의 학술사상 -논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외사학회지. 2008;21(2):149-158. (이미 현곡은 1980년 이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1980년대 『동의학방법론연구』로 그 동안의 연구가 집대성되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10) 이충열. 「현곡 윤길영의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연구』 재조명」.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4):751-760.

11)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집문당. 2008:101-108.

12) 오장을 중심으로 5종 기능의 力學的인 상관관계에서 인간의 생리현상이 발현한다는 관점으로 연구하는 것이 '構造力學的 생리학'이다.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33.). 즉, '구조역학적' 용어는 한의학의 오장 개념이 마치 건축물이 구조역학적으로 조화와 평형을 이루는 것과 유사하다는 뜻으로 현곡이 건축공학에서 원용한 것이다. (김경철, 홍동균. 「윤길영의 변증체계 고찰」.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16;20(1):15-26.)

13)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3-56.

14)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3-56.

15) 전국한의과대학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집문당. 2008:108-113.

16)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6-29.

17)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326-335.

18)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5-26.

인 측면에서 관찰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장과 오행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발생, 추진, 통합, 억제, 침정의 5종 기능활동은 오장 계열을 중심으로 하는 생체 기능활동의 구조역학적인 생리체계를 말한다¹⁹⁾. 이는 4대 구성요소가 정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임에 비하여, 동적인 기능적인 측면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명체의 운동, 순환, 소화, 호흡, 생식과 배설의 5가지 특성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6대 생명현상은 오장의 5종 기능활동이 육부와 경락을 통하여 발현하는 한열의 온도, 조습의 습도, 풍도의 육기를 말하며, 체내의 육기는 외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외부 육기의 영향을 받아 서로 상승 또는 길항하면서 다양한 현상을 보인다²⁰⁾. 이처럼 현곡은 음양대사와 기혈, 정신기혈의 구성요소, 오장, 육기로서 한의학의 기본 생리체계를 확립하였다.

2. 지산의 형상체계

지산은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 관상학과 역학 등을 접목하여, 형상의학으로 한의학의 새 장을 열었다. 形色脈症의 합일을 추구하여 四診을 모두 중요시하였고, 특히 망진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로 인간의 형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형상의학의 대표적인 학술사상이 되었다²¹⁾. 지산의 형상 분류의 기준과 체계를 살펴보면, 인간 생명체를 알기 위한 형태, 성정, 기능, 색이라는 4가지 형식 요소로 인간의 조직과 운행을 말하고 있다²²⁾. 얼굴 형태에 따른 형상은 精氣神血科로, 얼굴색에 따른 형상은 오장육부의 형상으로, 인간 성정은 六經形으로, 기능에 따른 형상은 走鳥魚甲類로 형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통합적인 입장에서 남녀노소와 膽膀胱體의 형상을 분류하였다²³⁾.

여기서 정기신혈의 형상은 안면 형태에 따른 형상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인체 구성요소의 의 편차적인 발현에 의하여,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인 기능의 특성과 그 형상이 결정되는 관점에서, 정이 위주가 되면 정과(○ 원형), 기가 위주가 되면 기과(□, ◇ 방형), 신이 위주가 되면 신과(▽ 역삼각형), 혈이 위주가 되면 혈과(△ 삼각형 또는 상중하의 장형 0)라고 할 수 있다²⁴⁾²⁵⁾. 이처럼 얼굴의 형태에 의하여 정기신혈을 분류하는 것은 사람을 종자라는 관점에서, 이 종자의 형태가 얼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활용한 것²⁶⁾이라고 할 수 있다.

지산은 색에 따른 형상으로 오장육부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오장육부가 내부에 숨겨져 있으며, 얼굴에서 색이나 이목구비의 형태 등으로 그 기능을 관찰할 수 있다²⁷⁾. 인체 외부로 나타나는 형색의 정보를 통하여 장부의 다양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특히 형상의학에서는 안면 색과 이목구비의 형태적인 특징을 의거하여 오장육부의 형상을 분류함으로써²⁸⁾, 결국 오장육부의 형상은 얼굴색에 따른 진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경형은 경락과 성정에 따른 형상 분류이다. 이는 경락을 중심으로 형상을 관찰하는 형상 유형이다²⁹⁾. 눈과 코가 모두 올라가는 기세의 태양형, 눈과 코가 모두 내려가는 기세의 태음형, 눈은 내려오고 코는 올라가는 소양형, 눈은 올라가고 코는 내려가는 소음형의 4가지 형상이며, 또 측면에서 관찰하여 안면이 전면으로 볼록렌즈처럼 돌출하고 눈 두덩이 두둑하면 양명형으로, 얼굴의 전면이 오목렌즈처럼 함몰되거나 특히 눈이 들어가면 췌음형으로 구분함으로써³⁰⁾³¹⁾, 육경형은 경락과 성정에 따른 분류이며, 임상적으로 외감 병증에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능에 따른 형상은 주조어감을 말하는데, 이는 몸통 부위를 관찰하여 그 발달한 부위를 가지고 형상을 분류하는 것이다³²⁾. 주류는 주로 간장이 위치하는 옆구리가 발달하

19)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9-43.

20)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34-39.

21) 남무길. 「관상학과 형상의학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11.

22)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2.

23) 이인수. 「형상의학에 대한 고찰 -진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20.

24)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VII』. 서울:지산출판사. 1998:280.

25)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III』. 서울:지산출판사. 1997:403.

26)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팔상론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15.

27) 이인수. 「형상의학에 대한 고찰 -진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24.

28)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21.

29) 이인수. 「형상의학에 대한 고찰 -진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27.

30)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26.

31)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II』. 서울:지산출판사. 1997:35.

32) 정행규. 『특강 동의보감』. 경남 하동:동의보감 출판사. 2007:30.

고 팔다리가 긴 편으로서, 달리기를 잘 하고 근육 계통의 질환이 많은 편이며, 조류는 심장이 위치하는 어깨가 발달하고 새가슴으로서, 얼굴이 붉은 편이며 눈이 둥그렇고 입이 작고 입술은 얇은데, 말을 잘 하며 신경성 질환이 많다. 어류는 신장이 위치하는 허리와 엉덩이가 나온 형으로 얼굴이 검은 편이며, 입이 크고 입술이 두툼하며, 신장병과 위장병이 많은 편이다. 갑류는 폐장이 위치하는 등이 발달한 형으로 얼굴이 희고 귀가 긴 편으로 호흡기 질환에 걸리거나 우울하기 쉽다³³⁾.

또한 지산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남녀노소와 담방광체의 형상을 분류하였다. 먼저 남녀노소를 살펴보자. 지산은 생식기 기준의 남녀 구분 외에, 신체적인 형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남녀를 구분하였다. 이는 생식기만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인 개념의 남녀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형상 중심의 다양한 여러 변수를 도입하여 상대적인 개념으로 남녀를 구분한 것이다³⁴⁾. 여기서 남자는 黑長肥剛하고 코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며, 여자는 白短瘦柔하고 입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³⁵⁾. 또 남자는 하늘을 위주로 만들어져서 頭大身小하고, 여자는 땅을 위주로 만들어져서 頭小身大하며³⁶⁾, 남자는 근골로 이루어져서 강하고, 여자는 피육으로 이루어져서 유하다³⁷⁾. 그리고 지산은 인체가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형상에 주목하여 노소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나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흠이며, 음양의 변화, 진액의 이합집산, 성장화수장의 변화를 알기 위해 묻는 것이다³⁸⁾³⁹⁾. 소아를 오장이 자리를 잡는 10세 이하로 보거나 또 天癸가 이르는 14세(여자), 16세(남자) 이하로 그 범주를 정하고, 노인인 오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으로 보거나, 천계가 마르는 49세(여자), 64세(남자) 이상으로 보는 내용이다⁴⁰⁾.

계속해서 지산은 위에서 분류한 모든 형상을 귀납하여, 담방광체를 주장하였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임상에서 질병

을 가장 간략하게 분별하고 파악하는 방법론이라고 하였다⁴¹⁾. 담방광체 분류는 인체 形氣의 성쇠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구분한 것으로서, 氣盛形衰하여 동적인 담체의 사람과 形盛氣衰하여 정적인 방광체의 사람으로 이분화한 것이다. 즉, 담체는 陽盛陰虛, 氣盛形衰, 多氣少血하고 그 증상이 血虛有火하고 燥熱이 많은 특징이 있으며, 방광체는 陰盛陽虛, 形盛氣衰, 多血少氣, 氣虛濕痰하고 寒濕이 많은 특징이 있다⁴²⁾.

3. 현곡의 생리체계와 지산의 형상체계의 비교

현곡은 생명현상에 대하여 음양의 協關으로 관찰하고 있다. 음양은 생리적으로 음양대사의 양세력을 말하는 음양, 상대적인 음양, 경락의 음양, 부위와 구역의 음양, 생명원의 음양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병리적으로는 음양 양세력의 차질로 인한 병증 발현이기도 하다. 또한 음양대사는 생후 발현하며, 후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생명원으로써의 음양은 선천 음양으로 부모에게서 타고 나온 음양으로 이를 元陰, 元陽이라고 한다. 원음, 원양은 선천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생리적으로는 후천적인 음양대사의 경향성을, 아울러 병리적으로는 허증의 경우에서 질병의 정도가 심하여 생명력에 손상이 되면 나타나는 음허증과 양허증을 파악하는 근본이 된다⁴³⁾.

따라서 현곡은 인체가 眞陰, 眞陽의 결합체이므로, 진음 진양의 선천적인 가치와 후천적인 중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⁴⁴⁾. 즉, 인체의 상대적인 세력인 음양은 기혈로 관찰되며, 또 이 상대적인 음양대사에는 선천적인 음양이 근거를 이룬다.

이를 형상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형상을 음양대사의 기혈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증을 살피는 것인데, 결국 상대적인

33) 최명희, 박원환. 「人身의 형상의학적 관찰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2001;5(2):262-282.

34)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31.

35)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VII』, 서울:지산출판사. 1999:328.

36)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V』, 서울:지산출판사. 1999:47.

37)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V』, 서울:지산출판사. 1999:306.

38)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III』, 서울:지산출판사. 1997:380-381.

39)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V』, 서울:지산출판사. 1998:149.

40)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31.

41)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III』, 서울:지산출판사. 1997:31.

42)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지산선생이 주장한 담 방광 용어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2):275-292.

43) 현곡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서울:명보출판사. 1985:17-63.

44)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58-66.

人身은 氣血뿐이니, 陰陽도 氣血을 떠나서 存在할 수는 없으므로, 陰陽과 氣血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陰은 血을 포괄하는데 단지 虛火上炎의 병증이 있고, 陽은 氣를 포괄하는데 氣보다 重하다. 辨證施治로 볼 때, 後天的인 손상의 범주에서는 氣血病證을 말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先天的인 氣運의 손상과 부족까지 포함하는 陰虛, 陽虛를 언급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세력인 음양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되어, 음양이 발현한 바인 기혈의 관점에서 그 형상을 보는 견해가 된다⁴⁵⁾. 따라서 음양은 사람의 형상 분류에 응용할 수 있으며, 음양의 성쇠에 따른 陰盛陽虛形과 陽盛陰虛形의 구분이 있게 된다. 이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陰盛陽虛는 身寒, 汗出身常清하며, 陽盛陰虛는 身熱, 腠理閉하여 서로 비교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며⁴⁶⁾, 또 陰盛陽虛는 얼굴의 전면, 몸통, 肌肉의 발달로 肥白하기 쉽고 정적이며, 陽盛陰虛는 얼굴의 측면, 사지, 근골의 발달로 瘦黑하기 쉽고 동적인 형상적인 차이가 난다. 이들은 陰盛陽虛하여 기허, 양허, 한증, 한습, 습담, 脾병의 병증이 많으며, 陽盛陰虛하여 혈허, 음허, 열증, 울화, 풍열조, 胃病의 병증이 많다⁴⁷⁾.

이런 음양 기혈의 상대적인 형상 비교 진단의 내용은 형상의학 뿐만 아니라, 일반 진단학의 형체 強弱肥瘦에 대한 망진에서도 확인된다. 形肥氣虛는 비만으로 피부는 희고 혈색이 없으며, 정신력이 부족하고, 체력이 떨어지며, 맥이 약하고 숨이 짧다. 양기가 부족하고, 습담이 많아서, 痰多, 현운, 흥민,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形瘦陰虛는 형체가 여위고, 가슴이 좁으며, 안색이 蒼黃하고, 피부가 건조하다. 이는 음혈이 부족하여 허열이 생겨 潮熱, 盜汗, 觀紅, 五心煩熱 등의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곧 여윈 사람은 화가 많다는 이론과 일치한다⁴⁸⁾. 이처럼 사람의 형상 분류에 음양을 응용하여 전신 형태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가중치 높은 대표적인 진단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 보아, 음양대사의 생리, 병리의 기초이론은 형상의학으로 陽盛陰虛, 氣盛形衰, 多氣少血, 血虛有火와 陰盛陽虛, 形盛氣衰, 多血少氣, 氣虛濕痰으로 상징되는 담체, 방광체의 형상 이론과 연관된다. 또 음양은 남녀 형상에서 남녀를 음양 順逆으로 파악하여, 남녀를 形과 氣, 耳鼻와 目口, 上左後表와 下右前裏, 方과 圓, 頭大身小와 身大頭小, 燥와 濕, 발산과 수렴, 정기허와 혈허, 외감으로 인한 양병과 음식, 거처,

음양, 희노 등으로 인한 음병, 육체병과 정신병, 방노병과 經帶胎產病 등으로 형상을 구분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다⁴⁹⁾.

다음으로 현곡이 인체 구성요소를 精神氣血로 보는 관점은 지산의 정신기혈의 형상과 관련된다⁵⁰⁾. 이미 『황제내경』 「本藏篇」에서 血氣精神은 생을 받들어 性命을 두루한다⁵¹⁾ 하여, 인체 구성요소를 정신기혈로 보고 있다⁵²⁾. 『황제내경』의 구성요소론에 입각하여, 精虛, 神虛, 氣虛, 血虛와 神實, 氣實, 血實 病證이 있으며, 이는 『동의보감』 「內景篇」에서 身形 다음으로 정기신혈을 다루고 있는⁵³⁾ 한의학 정신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의보감』의 체계가 바로 『황제내경』에 기반하면서도 또한 독창적인 위상과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동의보감』의 정신이 그대로 지산의 형상 진단의 체계에 이어진다. 즉, 인체 구성에서 그 형성의 근원이 되는 精의 요소에 쏠린 精科, 인체 대사의 결정체로써 정신과 생명력인 神에 편중된 神科, 생체 에너지인 氣에 치우친 氣科, 생체 물질을 나타내는 血에 기울어진 血科의 精神氣血 四科가 바로 인체 구성요소의 형상 체계가 된다. 정신기혈은 4대 구성요소로서 전신의 모든 장부, 경락과 연결되어 얼굴의 형상으로 나타나므로, 정기신혈의 형상은 안면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된다⁵⁴⁾.

여기서 정기신혈의 얼굴 형상 규정의 근거로 첫째 精科는 신장, 氣科는 폐장, 神科는 심장, 血科는 간장의 형상을 나타내는 장부 형상을 근거로 들 수 있으며, 둘째로 『황제내경』 오행인의 형상의 내용을 원용하여 精科는 水土形人, 氣科는 金形人, 神科는 火形人, 血科는 木形人으로 보는 취상법이며, 셋째 내재하는 본질의 모순을 배제하는 방향으로의 형상 관찰로서, 精科는 활동하기 싫어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잘 움직이는 등근 원형으로, 氣科는 훌트리기만 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하는 방형으로, 神科는 지나치게 칠정울걸 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天垂象으로, 血科는 모으려고만 하는 모순을 배제하기 위하여 승발력으로 조화를 맞추는 地積象으로 형상

45) 김경철. 『전신형태 진단』. 부산:대진출판사. 2005:13.

46) 張景岳도 身熱과 身寒이 많은 사람에게 대하여, 陽臟人과 陰臟人으로 서로 類型을 비교하였다. (張介賓. 『景岳全書 上』. 서울:대성출판사. 1988:16.)

47)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24-434.

48)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서울:성보사. 2012:51-53.

49)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24-434.

50) 『周易』 元亨利貞 4대 기틀에 대응하는 인체의 구성요소적인 측면의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5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213. 「本藏第四十七」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

52)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5.

53) 허준 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對譯 東醫寶鑑』. 서울:법민출판사. 1999:15-19.

54)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Ⅲ』. 서울:지산출판사. 1997:403-404.

화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⁵⁵⁾.

다음으로 현곡은 『황제내경』 五運六氣論에 입각한 오운적 생리론에서, 오장은 그 직능에 따라 계열적 분포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오장은 광의적으로 구조역학적인 생리 기능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장기로서 크게 보면 전신에 안닿은 곳이 없고, 극미하게 보면 세포내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기관, 조직, 세포 중 어느 것이고 이 구조역학적인 생리 기능이 존재한다. 인체의 생명현상은 구조역학적인 5종 기능의 균형, 차질, 평과 不平, 또는 항진과 부진으로 분석할 수 있고, 체내 물질과 외래 조건과 체내 조건을 역학적인 오장의 항진과 억제로 관찰할 수 있다⁵⁶⁾. 이는 결국 인체 오장의 관점이며, 형상적으로 간심비폐신을 중심으로 관찰한 것이다. 오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형인의 형상적인 특징에 대하여 『황제내경』에서 오형인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木形人은 피부색이 蒼色으로, 발생 기능을 형상하여 얼굴 형태가 직사각형의 형상이다⁵⁷⁾. 火形人은 피부색이 적색이며, 체형은 추진 기능을 取象하여 기운이 위로 쏠리기 때문에 얼굴 형태가 역삼각형의 형상이다⁵⁸⁾. 土形人의 피부색은 황색으로 누르스름하며, 체형은 통합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둥근 원의 형상이다⁵⁹⁾. 金形人의 피부색은 백색이고, 체형은 억제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각진 정사각형 또는 마름모의 형상이다⁶⁰⁾. 마지막으로 水形人의 피부색은 흑색으로 거무스름하다. 체형은 침정 기능을 취상하여 얼굴 형태가 밑부분이 커지는 삼각형이거나 물방울의 형상이다⁶¹⁾.

그리고 『황제내경』은 오장육부의 형태적인 발현의 외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藏象論에 근거하여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지하듯이 오장 배속은 간심비폐신이 각각 五官, 五色, 五體, 五華, 五志, 五聲 등으로 이루어진다⁶²⁾.

오장육부 외후는 『황제내경』에 나타나는데⁶³⁾, 이는 신체 내부 기관인 오장육부의 선천적인 상태를 밖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오장의 상태는 크기, 고하의 위치, 堅脆의 재질 정도, 端正 偏傾의 상태 등의 경우로 구분하며, 육부는 대소, 장단, 후박, 형태의 곡직, 완급의 구분이 있다. 또한 신체 외형에서 다양한 형상으로 관찰되는 오장육부는 정기신혈의 기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오장육부는 정기신혈을 저장하고 만들어 운영한다. 肝臟은 脇腹部에 해당하고, 心臟은 胸部에 해당하고, 肺臟은 背部에 해당하고, 腎臟은 腰部에 해당하므로, 脇腹가 발달한 사람은 肝臟이 성하고, 어깨와 등이 발달한 사람은 肺가 크고, 가슴이 발달한 사람은 心火가 많고, 허리가 큰 사람은 腎臟이 발달한 사람이다. 즉, 사람마다 오장중 어느 한쪽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서, 폐장이 발달된 사람은 그 쪽을 자주 쓰다보면 나중에 그 장부에 병이 오게 된다⁶⁵⁾. 폐가 발달한 사람은 폐를 자주 쓰다보면 폐장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심장이 발달된 사람은 심장을 많이 쓰다 보니 심장병이 오기 쉽고 이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위장병이 오기도 한다. 결국 五臟은 얼굴색, 이목구비, 몸통에서 발달한 부위, 성정 등을 종합하여, 어느 장기가 盛한지 虛한지를 보는 것이다. 이 오장의 형상과 병증이 『동의보감』에 오장육부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⁶⁾.

이처럼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오장 중심적인 형상 관찰 정신을 계승한 형상의학은 안면 색과 이목구비의 대소, 고저, 강유, 正偏 등의 형태적인 특징을 의거하여 오장육부의 형상을 분류하였다⁶⁷⁾. 얼굴의 이목구비와 색이 오장육부의 형상과 내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목구비는 오장의 기능과 직접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목구비에 오장을 배속하여 진찰에 활용한다. 즉, 이목구비

55) 이용태, 최병태, 최영현, 백근기. 「정기신혈과의 형상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19(5):1181-1190.

56)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9-43.

57) 木氣는 曲直하는 발생이다. 내부의 응축된 양기가 외부로 뻗어나가는 양상을 띤다. 따라서 그 형상은 사방으로 퍼지는 상하의 직사각형으로 나타난다.

58) 火氣는 陽中之陽으로 상부로 상승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상부가 넓게 펼쳐지는 역삼각형의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廣脷肉滿하여 등판의 살집이 풍만하고 넓고, 銳面하여 얼굴은 뾰족하다.

59) 土氣는 중앙의 통합지기로써 사방의 기운을 자기화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그 형상은 원으로 나타난다. 圓面하고 大頭, 美肩背, 大腹, 美股脛하다.

60) 금기는 수렴 억제하는 양상이다. 기운이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형국으로써, 그 형상은 정사각형이나 마름모의 형상을 띠게 된다. 모난 方面, 小頭, 小肩背, 小腹이다.

61) 水氣는 응축 침정하는 양상이다. 陰氣로써 하부로 기운이 침강하므로 삼각형, 둥근 물방울의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 面不平, 大頭, 廉頤이거나 廣頤, 小肩, 大腹하다.

62)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24-434.

63) 홍원식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213. (本臟 第四十七)

64) 따라서 靈樞 五色篇의 顔面臟腑部位 내용 등과 더불어 개인의 체질과 形象 등의 특성 파악과 오랜 기간의 만성질환의 진단에 활용 가능하다.

65) 사람은 발달된 장부 중심으로 살고, 그 결과 많이 사용한 장부 쪽으로 질병이 오게 된다.

66) 정행규. 『특강 동의보감』. 경남 하동군:동의보감출판사. 2007:55-71.

67)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21.

를 통해 오장의 형상과 생리 병리적인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목구비 중 어느 것이 큰 가를 보고, 오장중 어느 장기가 발달한지를 알 수 있고, 그 발달한 臟을 위주로 생리 병리 활동이 다른 臟에 비하여 더욱 활발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이목구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얼굴색 보다는 형상 진찰에 가장 우선적이며 중심이 될 수 있다. 또 얼굴색은 오장중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발달된 臟의 색이며, 질병의 상태에서 얼굴색은 왕성한 활동의 臟으로부터 병이 오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역시 발달된 臟의 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정 얼굴색은 그 색과 관련된 발달 臟을 중심으로 진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신체 장부의 형상을 살피는 것은 개인별 장부의 기능과 형태적인 편차의 차이와 다양성에 내재된 본질과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진단에서 장부의 편차 즉, 장부의 형상 특징을 살피는 것은 진단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과정이 되며, 특히 臟腑病의 진단과 치료에서 가장 근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오색, 이목구비, 五體와 五華, 안면 부위 관찰로서 어떤 장부로 인해 질병이 쉽게 오는지 확인된 후에, 현재 그 장부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인가를 그 장부와 연관된 병증의 유무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⁶⁸⁾.

다음으로 현곡은 인체 내외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六氣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⁶⁹⁾, 육기는 온도, 습도, 풍도의 생물 환경조건으로, 기후의 온도, 습도, 풍도가 인체에 영향을 받아 신체내 5종 기능활동과 온도 습도 풍도가 상승, 길항하는 것이 생명현상이라고⁷⁰⁾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사계절 기후 변화에 상응하여 생존하므로 육기의 변화에 따라 오장에까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장육부 기능의 실조 등으로 인체 내의 육기 상태에 병리 변화가 생겨 內風, 內寒, 內濕, 內燥, 內火熱이 일어난다⁷¹⁾. 이 육기 병증에서 風 병증은 외래의 風邪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발생기능 활동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증으로 肝病證에 속하며, 寒 병증은 외래의 寒邪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침정기능 활동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증으로 腎病證에 속하며, 熱 병증은 외래의 熱邪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추진 기능 활동의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증으로 心病證에 속한다. 또 濕 병증은 외래의 濕邪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통합기능 활동 이상으로 일어나는 병증으로 脾病證에 속하며, 燥 병증은 외래의 燥邪가 침범하거나 체내의 억제기능 활동 이상으로 나타나는 燥 병증으로 肺病證에 속한다. 이처럼 육기 병리 병증은 생물 환경의 상호 영향에 의한 특성으로 오장 병증으로 귀결할 수 있다⁷²⁾. 또 여기서 체내의 5종 기능의 이상 발현에 대한 영향 인자는 음식, 호흡, 칠정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지산도 음식 섭취와 호흡으로 생성된 기혈이 경락을 통해 神으로 발현되며, 칠정에 따라 氣의 움직임이 다르고 또한 氣의 움직임에 따라 칠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락의 유주 부위를 통해 기혈의 성쇠에 따른 성정과 형상을 관찰할 수 있다⁷³⁾고 하였다.

이처럼 생명현상에 대한 육기의 관점은 신체 내부의 장부, 칠정, 육기 그리고 신체 외부의 환경과 기후를 연결하므로, 경락을 이용한 육기 형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⁷⁴⁾. 그래서 지산 형상의 육경형은 기혈 운행의 통로로서 신체 각 방면을 연계하여 인체가 통일된 유기체 기능을 갖는다⁷⁵⁾ 경락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 경락을 중심으로 신체 형상을 마련할 수 있고 성정을 파악할 수 있다. 지산은 그 형상에 성정이 있는 것이요, 성정이 있는 곳에 형상이 있다고⁷⁶⁾ 하여, 형상과 성정이 관련이 있으며, 특정 형상에 특정한 성정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지산의 육경형은 『황제내경』과 『상한론』 이래로 六經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개념에서 성정에 의한 기혈의 승강 氣勢에 따른 형상 분류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경형의 특징에서, 눈과 코가 모두 올라가는 기세의 태양형은 태양 경락이 발달하여 氣血多少에서 少氣多血로, 육기의 외감 풍한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눈과 코가 모두 내려가는 기세의 태음형은 태음 경락이 발달하여 氣血多少에서 多氣少血하며, 육기의 濕과 통한다고 볼 수 있

68) 김경철, 이용태. 「장부병 변증에 대한 형상의학적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3):585-594. (이런 진단이 形色脈症의 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四診 융합 진단의 기반이 된다.)

69) 김완희. 『신생리학총론』. 서울: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1982:216-221.

70)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35-36.

71) 문준전. 『동의병리학』. 서울:고문사. 1993:31.

72)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35-36.

73)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25.

74)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24-434.

75) 최용태. 『침구학』. 서울:집문당. 1988:45.

76)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VI』. 서울:지산출판사. 1998:19.

다. 또 눈은 내려오고 코는 올라가는 少陽形은 소양 경락이 발달하여 氣血多少에서 多氣少血하며, 少陽相火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은 올라가고 코는 내려가는 소음형은 소음 경락이 발달하여 氣血多少에서 多氣少血하며, 이는 寒과 통한다. 또 측면에서 관찰하여 안면이 전반적으로 돌출한 陽明形은 양명 경락이 발달하여 多氣多血하며, 안면, 복부 등이 양명에 속하므로, 熱이 많고 濕熱이 생기기 쉽다. 그리고 안면이 함몰된 厥陰형은 厥陰경락이 발달하여 少氣多血하며,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냉하기 쉬우므로, 寒에 상응한다⁷⁷⁾. 결과적으로 육경형은 경락과 성정에 따른 형상 분류로서, 임상적으로 주로 경락 중심의 외감 병증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형상학의 육경형은 경락과 성정에 따른 형상 분류로서 탁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곡의 기초체계와 부합하는 지산의 형상체계는 또한 변증체계에도 그대로 체계적으로 연계된다. 변증체계는 음양, 神精氣血, 오장, 육기의 어느 체계에서의 寒熱虛實인가를 변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으며, 인간 생활에서 일어나는 칠정, 방노, 음식, 노역의 내상이 있고, 2차 병리적인 산물인 담음, 어혈, 적취 병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나이와 성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 부인, 소아 병증 등이 있으나, 證治가 證의 속성적 체계 분류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이들도 또한 음양, 神精氣血, 오장, 육기의 어느 체계에서의 병증으로 귀속하여 관찰할 수 있다⁷⁸⁾. 현곡이 요약한 것처럼, 『황제내경』의 생리 병리체계와 辨證要綱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며, 이는 『동의보감』의 목차와도⁷⁹⁾ 직결되는 점에서도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현곡의 변증체계 연구는 지산의 형상학적인 체계와도 연계되는데, 형상학에서 말하는 形色脈症의 합일을 추구하는 병증과 형상의 상호 관계 파악도 또한 같은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다⁸⁰⁾. 음양 병증은 담체 방광체 등의 내용으로, 정신기혈 병증은 정신기혈 4과에서, 오장의 5종 기능 병증은 오형인의 형상, 오장병의 내외증, 주조어갑에서, 육기병증은 육경형 등의 내용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산의 형상학은 『황제내경』의 인체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변증체계를 확대 재생산하여 형상 진찰 체계로 연계함으로써, 한의학 변증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으며, 임상적인 효율을 높인 연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⁸¹⁾⁸²⁾. 결국,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 근거한 현곡의 생리체계와 변증체계, 지산 형상학의 형상체계와 변증체계⁸³⁾⁸⁴⁾는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후학들에 의해 제 3의학으로까지 주창될 정도로, 현곡의 창의적인 기초 생리이론은 최근에도 한의생리학의 새로운 이론 정립과 연구 방향을 제시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한국 한의학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한 지산의 형상학은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의 진단과 치료 정신을 계승하여 형상 중심으로 사전을 융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임상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현곡과 지산의 학문에서 그 핵심에 해당하는 생리체계와 형상체계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음양 협관에 기초하는 음양대사는 기혈의 많고 적음으로 관찰되는 담방광체와 남녀노소의 형상으로, 인체 생명현상을 뜻하는 정신기혈의 4대 구성요소는 얼굴의 형상을 중심으로 관찰하는 정신기혈 형상으로, 오장 중심의 구조역학적인 체계는 오관을 관찰하는 오장 형상과 주로 몸통을 관찰하는 주조어갑 형상으로, 인체 내외의 영향을 받는 육기는 눈과 코의 육경형으로 연계된다. 또한 지산의 형상체계와 현곡의 생리체계는 양자 모두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 기반하며, 동시에 변증체계와도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지산의 형상체계는 현곡이 정립한 한의학의

77) 六經形은 외부의 六氣가 인체에 침입할 때, 각각 그 발달된 經을 따라 六經形으로 오는 것이다.

78) 현곡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서울:명보출판사. 1985:44.

79) 허준 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對譯 東醫寶鑑』. 서울:법인출판사. 1999:15-19.

80) 김경철, 신순식, 이용태. 「현곡 윤길영의 변증요강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3):595-604.

81) 김종원, 진수형, 지규용, 김경철, 이인선, 이광영 외. 「장상론과 주조어갑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1):34-40.

82) 김경철, 이용태, 지규용, 김종원, 이인선, 김종환 외. 「형상 유형에 따른 질병 전조의 의의에 대한 기초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2):301-307.

83)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23.

84) 현곡 윤길영. 『四象體質醫學論』. 서울:한얼문고. 1973:2-26.

생리체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한의학의 기초이론 체계, 형상진단 체계, 변증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가 그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보완하면서 발전하는 미래로의 확장성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1902100001)

참고문헌

1. 김남일, 강연석. 「의학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현곡 윤길영의 학술사상-논문과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의사학회지. 2008;21(2):149-158.
2. 이충열. 「현곡 윤길영의 「한방생리학의 방법론연구」 재조명」.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4):751-760.
3. 김완희. 「창간사」. 제3의학. 1996;1(1):1.
4. 전국한의학과대학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서울:집문당. 2008:101-108.
5. 정행규. 『동의보감특강』. 서울:정행출판사. 2018.
6. 박준규. 「지산 박인규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7. 강경화, 백근기, 김경철, 이용태. 「형상에 관한 문헌 고찰 -내경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3):424-434.
8. 김경철, 이해용. 「윤길영의 변증론 변천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원진단학회지. 2015;19(3):151-158.
9. 현곡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연구』. 서울:성보사. 1983.
10. 김경철, 홍동균. 「윤길영의 변증체계 고찰」. 대한한의원진단학회지. 2016;20(1):15-26.
11. 남무길. 「관상학과 형상의학의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12. 이인수. 「형상의학에 대한 고찰 -진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13. 대한전통한의학회편. 『지산선생임상강의 II, III, V, VI, VII』. 서울:지산출판사. 1997.
14. 현곡 윤길영. 『동의임상방제학』. 서울:명보출판사. 1985.
15. 김경철. 『전신형태 진단』. 부산:대진출판사. 2005.
16. 張介賓. 『景岳全書 上』. 서울:대성출판사. 1988.
17. 이봉교, 박영배, 김태희. 『한방진단학』. 서울:성보사. 2012.
1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9. 허준 저. 동의보감국역위원회. 『對譯 東醫寶鑑』. 서울:법인출판사. 1999.
20. 이용태, 최병태, 최영현, 백근기. 「정기신혈과의 형상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5;19(5):1181-1190.
21. 문준전. 『동의병리학』. 서울:고문사. 1993.
22. 최용태. 『침구학』. 서울:집문당. 1988.
23. 김종원, 전수형, 지규용, 김경철, 이인선, 이광영 외. 「장상론과 주조어갑에 대한 고찰」.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1):34-40.
24. 현곡 윤길영. 『四象體質醫學論』. 서울:한얼문고. 1973.
25. 김완희. 『신생리학총론』. 서울: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1982.
26. 김경철, 신순식, 이용태. 「현곡 윤길영의 변증요강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17(3):595-604.
27. 최명희, 박원환. 「人身의 형상의학적 관찰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원진단학회지. 2001;5(2):262-282.